



김제시, 다자녀가정 주거환경 개선 기부 행렬 이어져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위치한 기업들과 초록우산 전북후원회가 광활한 다자녀가정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시는 12일 (유)금란산업개발(대표이사 은윤기) 1천만원, 광활농협협동조합(조합장 임영용) 5백만원, 농협사료전북지사(지사장 홍의주) 3백만원, 초록우산 전북후원회(회장 홍의주) 5백만원을 다자녀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해진 기부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내 한 다자녀가정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 김제시와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가 협업체 추진하고 있는 '개·소·금(깨끗하고 소중한 보금자리) 아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에 참여한 한 기업 대표자는 "이렇게 뜻깊은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주거 취약 아동 가정에 깨끗하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선물 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제=곽태 기자



작년 잼버리 참가 세계 청소년 고창 찾아

고창군은 지난 10일~11일 지난해 한국잼버리대회의 참가 청소년들이 지역을 찾아 문화관광 체험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4개국(캐나, 멕시코, 영국,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은 지난해 한국 잼버리 때의 감동을 잊지 못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을 다시 찾았다. 1박2일 동안 고창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고창의 문화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선운사에서 산사 체험과 다도체험 시간과 고인돌 유적지를 방문해 반달돌칼, 화살촉 등을 만들어보고, 신재효 판소리 공연을 방문하여 판소리를 배우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 심덕섭 고창군수와 환담을 가지며, 고창 관광홍보영상, 2023년 잼버리 활동영상 등을 시청하였고, 관내 스카우트 대원과도 교류의 장을 가졌다.

이틀여 해외 잼버리 대원과 관내 스카우트 대원들은 제51회 고창모양성제 홍보 서포터즈도 임명, 임명된 서포터즈는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5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오미숙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해외 청소년에게 고창군의 아름다움을 담은 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어 뜻깊었고, 앞으로는 고창 모양성제 홍보 서포터즈로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진안군-기전대, 진안고원 창업지원사업 현장견학

진안군 농촌활력과와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단장 조덕현)은 지난 9일 '진안고원(GO WANT)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선진사업장 현장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안고원(GO WANT) 창업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진안군의 주관으로, 총 1억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진안군 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를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창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자 올해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진안고원 창업지원사업은 창업 초기사업비 지원, 창업자 교육, 네트워크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 총 7종의 사업장을 지원한다.

이번 현장견학에서는 2019년부터 6차산업에 적용하여 식물원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 '김제 휘게팜', 한국약선음식 연구원의 원장이자 특용작물을 활용하는 사업장 '전주 감로현' 등 창업자 아이템 맞춤형 현장견학이 진행되었다.

진안군청 김사훈 과장(농촌활력과)은 "이번 진안고원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진안지역 특화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창업생태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신건강 고위험 재학생의 조기 발견·치료 협력’

우석대, 대자인병원과 손잡고 재학생 마음 건강 챙기기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와 대자인병원(원장 이병관)이 정신건강 고위험 재학생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12일 대자인병원 공감치유센터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이병관 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학생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 △재학생 대상 정신건강 인식개선 활동 추진 △심리운동 교육 및 치료중재 프로그램 개설 지원 등이다.

또한 양 기관은 협력 위원회를 통해 대상 학생의 사후관리에도 힘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우석대학교는 학생상담센터장과 심리운동학과 주임교수, 선임상담위원, 마음건강 예방 및 고위험군 관리강화 담당자를, 대자인병원에서도 지역사회소통팀장과 정신과 전문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협력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박노준 총장은 "대자인병원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학 내 정신건강 고위험 재학생의 조기 발견과 함께 빠른 치료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재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해 의료복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관 대자인병원장은 "우석대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캠퍼스 내 사각지대에 위치한 학생들이 지속적인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번 업무협약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의 선도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죄책감과 작별하는 부모' 특강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 학력지원센터가 여름 방학 캠프 프로그램으로 지난 8일 '죄책감과 작별하는 부모'라는 주제로 부모교육 특강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한국부모교육연구소 서유지 소장을 강사로 초대해 완벽한 부모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현실적인 조언을 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며, 약 3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했다.

학부모들은 서로의 자녀양육 방법 및 관계에 대한 고민과 아픔, 문제점 등을 소통하고 공유하며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 위한 핵심 가치, 공감의 폭을 넓히는 대화법, 조건 없는 사랑과 격려를 통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법을 나누기도 했다.

특강을 들은 한 학부모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의 성숙함이라는 것을 배웠다"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녀에 대한 죄책감과 작별하고 지혜로운 부모로서의 길을 탐구하는 명쾌한 시간을 갖게 된 부모교육이었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은행,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성공 개최 후원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12일 전북은행 본점 8층에서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후원금 1억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백종일 은행장과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이왕준 조직위원장, 김희선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전통음악인 판소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계 음악을 한자리에서 즐기는 글로벌 문화예술축제로 그동안 가을에 열리던 축제를 올해 처음 8월로 앞당겨 여름 축제로 진행한다. 이에 전북은행은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식 후원사로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지방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번 전달식을 마련했다.

후원금 1억원은 14일부터 5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및 도내 전역에서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를 통해 당대 최고의 명인과 국내·외 최고의 명사, 월드뮤직, 지역예술가들과 신진예술가들의 무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북은행은 축제기간 동안 '전북은행 썬박스'를 통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제공, '인생네트 포토부스' 운영, 소리프론티어 경연대회 1등 'JB소리상(전북은행장상)' 시상, JB카드 할인 이벤트 등을 펼치며 축제장을 찾은 관객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백종일 은행장은 "23회째를 맞아 여름축제로 전환한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음악과 공연을 즐기며 문화예술을 통한 풍요로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태권도로 놀다’... 무주교육장배 태권도 페스티벌 성료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기)은 지난 10일 무주 예천문화관에서 '2024 무주교육장배 태권도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무주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무주군태권도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 품새 495명, 겨루기 69명 등 무주 및 전국의 유·초등학생들이 대거 참가하였다. 겨루기, 품새, 발차기 등의 알찬 구성과 즐거운 이벤트를 더해 그야말로 축제의 장을 이루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품새, 겨루기, 격파 등의 종목에서 평소 갖고 있던 자신의 태권도 실력을 맘껏 발휘하였고, 전국에서 모인 동료들과의 친해지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또한, 연예인 사회자의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냈다.

김승기 교육장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학생들의 태권도 실력이 향상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도동동 지사협,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동장 소선자, 민간 서덕교)는 1일1가구 소통행정을 통한 방문에서 발굴한 오장동 합흥면우 숯불갈비(대표 우정상)에 착한가게 18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매출의 일정액 (월 3만 원 이상)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정상 대표는 "착한가게 지정에 힘입어 더욱더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서덕교 위원장은 "도동동에 나눔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선자 도동동장은 "도동동에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나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향교동, 백세 어르신 축하 방문

남원시 향교동(동장 권혜정)은 '1일 1가구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백세어르신을 찾아가 축하인사를 전하는 소통행정을 위해 관내, 향교동 재실마을에 거주하는 김옥임 어르신을 방문해 백세까지 건강하게 지내신 것을 축하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존경을 전했다.

이번 활동은 교령화와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건강한 노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활동으로, 이 자리에서 권혜정 동장은 백세까지 건강하게 지내신 어르신께 축하인사를 전하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향교동의 '1일 1가구 방문' 프로그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를 위해 매일 열람추진과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생활환경을 점검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건협 전북·군산시협의회, 수해 성금·품기탁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군산시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협회는 12일 군산시를 방문해 김임준 시장을 만나 수해복구 및 구호를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군산시의 성산면과 나포면은 지난날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지난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임근홍 회장은 "최근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위트가 되길 바라며,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작지만 소중한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전북특별자치도 3,200여 전문건설업체도 지역사회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특별히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군산시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상배)에서도 구호물품 수건 200장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현장 복구와 이재민들의 생활품 및 구호품 긴급 지원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김육기 기자



김제사랑장학재단, 중학생 서울대·국립박물관 탐방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은 12일 관내 중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명문대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학생들은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캠퍼스 투어에 참여했다. 대학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소개를 들은 후, 다양한 학과와 연구 분야를 둘러보며 학술적 분위기를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문화체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직접 관람하며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번 탐방에 참여한 한 학생은 "서울대의 다양한 학문 분야를 직접 경험하며 진로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주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더 큰 꿈을 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사랑장학재단은 2009년부터 명문대 교육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곽태 기자